



DK벤딩 멀티자판기 올해 일낸다

올해 멀티자판기 시장은 DK벤딩을 주목해야 할 것 같다. DK벤딩은 야심에 차게 품질을 개선한 멀티자판기 신모델을 가지고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다. 이 회사 멀티자판기가 주목을 받는 것은 기존 멀티자판기들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었던 품질문제를 개선했다고 공언하고 있다. 투출방식에 있어서나 제품 적재 방식에 있어 기존 방식과는 전혀 다른 컨셉으로 품질을 개선한 점이 차별화 요인이다. DK벤딩은 '멀티자판기 시장을 평정하는 것은 결국 품질'이라는 기치 하에 야심에 찬 시장공략을 진행해 나가게 된다. 과연 DK벤딩 멀티자판기가 올해 일을 낼 수 있을까.

절치부심, 품질개선을 향한 뜨거운 집념

DK벤딩이 2005년 1월부터 멀티자판기 개발에 착수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게다. 2005년 4월에 1차 제품을 완료하여 특허등록을 했고, 2006년 3월 멀티자판기 2차 시제품을 개발하게 된다. 이때 야기된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2007년 6월에 개선형 모델을 선보이게 된다.

이때까지는 필드에서 제품이 보급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자판기업계에서는 DK벤딩이 멀티자판기로 사업을 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다. DK벤딩은 멀티자판기 시장 개척의 1순위 사업 모델로 유제품자판기를 염두에 두고 서울우유와 제휴를 진행했다. 하지만 서울우유와 계약이 무산이 되자 절치부심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동안 필드 테스트도 진행하고 타사 제품 운영상황도 살펴보는 과정에서 현재 수준보다 멀티자판기 품질수준이 업그레이드되지 않고서는 시장 활성화가 힘들다는 판단을 했다. 근본적인 품질개선을 통해 시장에서 원하는 품질수준을 맞추지 않고서는 시장 개척에 한계에 있다고 본 것이다. 이때부터 집중적으로 품질보완에 매달려 투출방식에 있어서나 제품 적재 방식을 개선한 신제품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품질이 얼마나 완벽하나'가 시장 경쟁력의 원천이라는 판단 하에 타사 제품들의 장단점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보완을 진행했다. 이렇다 보니 새로운 방식, 새로운 개념의 멀티자판기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DK벤딩의 고정원 사장은 "그동안 선택과 집중을 통해 멀티자판기에 올인(all in)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완벽해 지기 전에는 필드에 제품을 내놓지 않겠다는 비장한 자세로 품질수준을 끌어 올렸다"고 말했다.



DK벤딩 멀티자판기의 경쟁력

DK벤딩의 멀티자판기는 우선 제품 인출방식을 기존 제품과 완전 차별해해 투출 확실성을 높였다. 파티션 상부에 장착된 벨트 중앙에 실려 있는 제품을 안아서 직접 베켓에 투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또한 칼럼부 개별 모터 장착과 물품 이송부분 컨베어 벨트 장착으로 안정성, 신뢰성을 확대했다. DK벤딩의 관계자는 “제품 인출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에러발생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적재방식에 있어 안정성 및 신뢰성을 극 대화했다. 기존 제품들은 일괄적 파티션 배열에 따라 세우기가 힘들거나 특수용기의 제품을 투출하는데 에 러 발생 확률이 높다는 문제를 안고 있었다. DK벤딩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해 어떠한 제품도 벨트위에 탑재 만하면 되도록 했다. 쓰러질 염려가 있는 얇은 제품은 하단부 1~2팩 스파이럴 스프링 팩에 다수 적재가 가능하다. 이 방식은 국내 최초로 도입이 되었다. 또한 서랍 선반형 파티션 적용으로 관리가 용이하고 제품 입출고 시 선입 선출이 가능하다.

이 같은 품질 성능의 개선을 통해 멀티자판기에 걸맞 게 다양한 제품과 특이한 디자인 용기제품도 적용 판매가 가능하다. 실례로 기존 제품에는 적용이 힘든 ‘파우치’ 제품도 적재 판매를 할 수 있다.

베켓 콘베어부를 개선한 점도 특징이다. 콘베어 벨트 부위를 좌측대비 우측 투출구 방향으로 15°C 각도로 굽려 내려가면서 투출될 수 있게 해 편리성을 높였다. 도난 방지기능을 강화한 점도 특징. 투출구 상단에 바

스켓을 담아 모터회전에 의해 투출이 되다보니 장난 및 도난의 여지를 없앴다.A/S의 편리성을 높인 점도 돋보이는 기능이다. 베켓부 단순화 및 벨트장력이 10배 이상인 제품을 채택하여 중요 발생부 수리시간을 숙련 공 기준으로 5~10분이면 처리 가능하도록 했다.

멀티자판기 분야, 최고로의 부상을 꿈꾼다

이처럼 DK벤딩의 멀티자판기는 기존 제품과는 많이 차별화된다. 고정원 사장은 “멀티자판기 소비자 및 관리자 관점에서 개발을 진행하며 기존 멀티자판기가 안고 있는 근본적 문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DK벤딩의 야심에 찬 신제품 출시는 멀티자판기 시장에 있어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다양한 내용상품을 수용할 수 있는 멀티자판기의 장점을 극대화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특이한 용기 디자인의 제품도 수용할 수 있어 멀티자판기 사업 영역 확대의 좋은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또한 투출 에러를 최소화하고 운영자 관리가 용이하도록 제작된 점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과연 DK벤딩 멀티자판기가 필사의 노력을 기울인 만큼 필드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가 큰 관심사이다. 필드에서 품질 경쟁력을 검증한다면 DK벤딩 멀티자판기의 위상은 단숨에 올라가게 된다. DK벤딩은 남들보다 필드 도전은 늦었지만 멀티자판기 분야의 최고로 부상할 수 있다는 자신감에 충천해 있다. 정말 올 한 해 큰일을 낼 듯한 분위기이다.